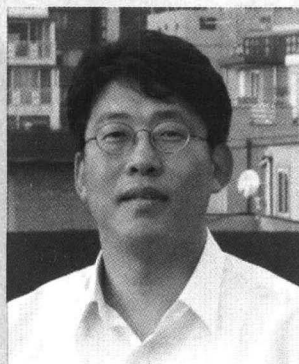


## 남북저작권 교류의 숨은 조력자

신동호 \_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문화협력위원장



1998년이었다. 교보문고에서 책을 고르던 신동호 문화협력위원장은 《조선수군사》를 펼쳐보다가 깜짝 놀랐다. 국내에서 나온 이 책이 실은 북에서 출판된 책으로 '겉데기'만 바뀐 채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수군사》만 아니었다.

“6·15남북공동선언 때 기회다 싶어 통일부를 통해 대북 주민접촉 승인을 얻어 북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획서 하나 들고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찾아갔죠. 그때 북경대사관에서 소개해준 아태평화위 사람을 만나 문서만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후일 그 문서는 평양으로까지 건네졌다. 다음 해인 2001년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신 위원장은 따로 북측 관계자와 만날 수 있었다. ‘이 서류가 당신이 작성한 게 맞느냐’는 것이었다. 신 위원장은 2003년 경문협을 만들면서 북측에 정식 사업제안을 했다.

“처음엔 단지 북한의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3자를 통하거나 편법으로 출판된 북한 저작물을 직접 들여올 수 있으며, 저작권을 매개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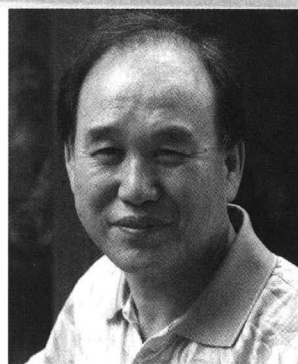
신 위원장은 지난 7월 저작권문제와 관련해 4번째 북한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방송·영상저작권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전자도서관사업을 추진해 온 한양대학교 실무진이 현지 실사를 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남북경협 성공률이 2퍼센트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저회도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계절에서 《딴격정》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북에서도 저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니까 저쪽에서도 받아들인 거죠. 북한을 만나면 만날수록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취재\_신동섭 기자

## 출판통일의 기초는 남북 ISBN 통합에서 부터

이두영 \_ 범우출판문화재단 이사(메타박스 대표)



“다른 분야의 남북교류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출판계에서는 교류의 필요성조차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범우출판문화재단(이사장 한승헌) 이두영 이사는 지금이라도 빨리 남측 출판인들이 남북출판문화교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가 2004년 12월 ‘통일지향적 남북출판문화교류’ 주제의 세미나를 준비할 때만 해도 이에 관한

논문다운 논문은 2, 3편에 불과했다. 북한과 긴밀한 일본의 한 단체에 문의해도 마찬가지로였다.

범우출판문화재단 출범 당시 ‘남북출판정책개발’을 역점 사업으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재단은 향후 ▲북한의 출판시스템 실태 파악 및 분단경험국의 출판교류협력정책 발전 과정 연구 ▲통일지향적 남북출판교류협력정책 개발 및 전개 ▲통일 이후 남북출판체제 통합작업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980년대에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중국이나 구소련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북한 출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해외동포 사랑의 책 보내기’를 통해 책을 가져다주면 동북3성 교포들조차 생소한 단어나 표현 때문에 읽지 못해요. 북한은 더하죠. 그런 이질감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출판교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에서 출판된 책의 목록과 출판체제를 연구해야 하고, 출판자원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이사는 남북 단일 ISBN그룹번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SBN은 국가별, 지역별, 언어권별로 구분됩니다. 현재 남과 북은 국가별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하나의 언어권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서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출판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한편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기간인 10월 21일에 ISBN국제센터가 있는 베를린에서 베를린자유대학과 함께 ‘독일의 출판산업 통합과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취재\_신동섭 기자

## 동족에 주고받는 데 출판 매체만큼 좋은 게 없다

강말실\_ 사계절출판사 대표



5월 7일 사계절출판사 강말실 대표는 《림격정》 저작권 계약을 위해 북녘 땅을 밟았다. 지난 20년간의 저작권료 15만 달러를 홍명희 씨의 손자이자 상속자인 홍석중 씨에게 지급한다는 계약서에 합의하기 위해서였다.

“20년 동안의 《림격정》 제작 상황을 자세히 담은 우리 측 자료를 확인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신뢰해 주시더군요. 저작권료에 대해선 저희 측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주셨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였죠.”

강 대표는 “그간 판문점을 지나 육로로 북녘 땅에 가서 홍석중 선생을 직접 만나는 게 꿈이었다”며 방북 당시의 감회를 되새겼다. 이번 일은 강 대표 개인은 물론, 남북간 저작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사계절 측은 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15만 달러 중 지난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5만 달러씩 10만 달러를 지불했고, 나머지 5만 달러는 2006년 6월 중에 지불한다고 밝혔다.

북측과 출판교류를 하며 그 콘텐츠를 검토했던 강 대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측 동화보다 상상력이 전반적으로 뛰어나다”며 기발함과 재미, 감동을 곁들여 ‘아이들의 마음’으로 쓴 동화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남북 어린이들이 책을 바꿔 읽으며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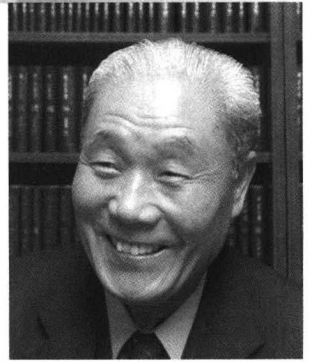
“통일을 위해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럴 때 출판만큼 영향력이 큰 수단도 없어요. 이런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따뜻한 동족애를 주고받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 강 대표는 “북측에서 저자와 화가들의 프로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측 기획에 맞는 북측 작가나 화가를 섭외해 책을 출판하는 일이 곧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차후 사계절 측은 《청동향아리》 《이상한 소경》 《귀가 큰 토끼》 등의 북한동화도 출간할 예정이다. **주문**

취재\_ 김청연 기자

## 가치 있는 책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소개하겠다

김주팔\_ 대훈서적 대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북한도서를 소장한 것으로 정평이 난 대훈서적 김주팔 대표가 이에 관심을 갖게 된 서울올림픽 즈음이었다. 당시 북방정책이 활발히 진행되던 중에 학계 인사들이 김 대표에게 북한도서에 대해 물어 왔다. 이에 “못 구할 것 뭐 있겠냐”고 답한 김 대표는 일본, 중국, 연변 등지를 돌아다니며 책을 구하기 시작했다.

1989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참관 당시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책이 많이 없어졌다”는 현지 관계자 얘기 또한 계기로 작용했다. 남 얘기 같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이다.

“1990년부터 중국 연변지역, 특히 조선족이 운영하던 연변 문예사를 파트너로 삼아 북한서적을 수입했습니다. 1993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북한도서 유통허가를 받아 반입, 보급을 하게 됐지요.”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된 후엔 가치 있어 보이는 책이라면 무리한 투자를 해서라도 사들였다. 그간 들여온 책들은 147종 1,500여 권. 《이조실록》(전400권)과 《고전문학선집》 《고려 태조왕건》 《조선료리선집》 《조선식물지》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대훈서적 자체적으로 홍석중 씨의 《황진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창비가 제정한 2004년 만해문학상 수상작에 뽑혀 최초로 북한 작가가 남측 문학상을 수상하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조선작가 동맹의 기관지 <조선문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책이다. 2001년 영인본으로 출간된 적이 있는 이 책은 올해 광복 60주년을 맞아, 1946년 창간호에서 2005년 6월호까지 결본 잡지를 찾아 증보 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 대표의 요청으로 미국 워싱턴대 김형찬 교수가 미국 매릴랜드주 컬리지 파크 College Park의 문서보관소 National Archive로 달려가 <조선문학>의 전신인 <문화전선>을 ‘발굴’ 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윤동기에 앞서 문화교류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북한 책을 들여온다”며 “통일 이후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다양한 문화교류가 필요하며, 책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주문**

취재\_ 김청연 기자